

신명기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논의: 신명기 4장 1-49절을 중심으로*

이은우(장신대)

1. 들어가며

신명기의 형성에 관해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드 베테(W. M. L. de Wette)가 신명기가 요시아 시대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¹ 벨하우젠(J. Wellhausen)이 그의 문서가설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 D 자료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² 이후에는 신명기는 기원전 7세기에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³ 요시아의

* 이 논문은 202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은 제120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2022.9.16.)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W. M. L. de Wette, "Dissertatio critica qua Deuteronomium a prioribus Pentateuchi libris diversum alius cuiusdam recentioris auctoris apus esse monstratur," *Opuscula theologica* (Berlin: Reimerum, 1930), 149-68.

2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³ (Berlin: Reimer, 1899); idem,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New York: Meridan, 1957).

3 J. R. Lundbom, *Deuteronomy: A Commentary* (Michigan/Cambridge: Grand Rapids,

종교개혁과 관련된 신명기 법전의 범위를 벨하우젠은 신명기 12-26장으로 한정하지만,⁴ 드라이버(S. R. Driver)는 신명기 1-26장을 요시아 시대의 단일 저자에게서 유래한 법전으로 이해한다.⁵ 폰 라트(G. von Rad)와 노트(M. Noth)는 신명기 4장 44(45)절-30장 20절이 신명기 형태로 구성된 법전이었고, 여기에 바빌론 포로기의 신명기 사가의 편집으로 신명기 1-3(4)장과 31-34장이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⁶ 노트 이후의 다수의 학자는 신명기 1-3장과 31장 1-8절과 34:1b-6절이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 신명기 사가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⁷ 신명기의 형성에 관한 논의에서 신명기 사가의 본문으로 이해되는 1-3장과 신명기 법전 혹은 신명기의 초기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 신명기 5장(혹은 4장 44절)이하에서 26장(혹은 30장)까지의 본문 사이에서 청사진 혹은 조감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신명기의 구성에 관한 이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본문이 신명기 4장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신명기 연구에서 신명기 4장만큼 학자들의 관심을 받은 본문도 없을 것이다.

폰 라트가 이 본문이 앞장과 심하게 단절된 설교 합성체라고 주

2013), 6-7.

4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³, 191-95.

5 S. 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ICC; Edinburgh: T. & T. Clark, 1895), lxvi-lxxii.

6 폰 라트는 신명기 4장 45절-30장 20절이 신명기 사가 이전에 신명기 형태의 책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G. von Rad, *Deuteronomy* (London: SCM Press, 1966), 11-13), 노트는 신명기 4장 44절-30장 20절이 신명기 사가 이전에 신명기 형태의 책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M.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 Sup.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12-17).

7 R. D. Nelson, *Deuteronomy* (OTL;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4.

장한 이후,⁸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편집 비평적 연구가 뒤따랐다.⁹ 레젠호프트(W. Resenhöfft)는 신명기 4장은 복수 판본에 속하는 구절들(4:1ab β -2, 5-8, 10-12, 14-18, 20-23ab α , 25-28)과 단수 판본에 속하는 구절들(4:1a α , 9, 19, 23b β -24, 29-40)과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단수 구절들(4:29-31)과 E 자료에 속하는 4장 13절, P 자료에 속하는 4장 3-4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¹⁰ 넬슨(R. D. Nelson)은 신명기 4장과 1-3장 사이의 단절에 관심을 기울이며, 신명기 4장이 신명기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명기 4장에

8 G. von Rad,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ATD 8; Göttingen, 1964), 36.

9 다른 한 편에서는 로핑크(N. Lohfink)가 신명기 4장(1-40절)이 한 번에 유래한 본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본문의 통일성을 주장한 이후 다수의 학자가 이 본문의 통일성을 주장했다(N. Lohfink,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leitungsfragen zu Dtn 5-11* (AnBib 20;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idem, *Höre, Israel! Auslegung von Texten aus dem Buch Deuteronomium* (Die Welt der Bibel), Düsseldorf, 1965, 87-120, 특히 92); 브라울릭(G. Braulik)은 이 본문의 대칭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본문의 핵심 담론은 9-31절로 서론인 1-8절과 결론인 32-40절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각 구조의 핵심 개념을 연결하는 어휘들이 대칭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G. Braulik, *Literarkritik und Archäologische Stratigraphie. Zu S. Müttmanns Analyse von Deuteronomiums 4, 1-40*, *Biblica* 59 (1978), 351-378); 메이즈(A. D. H. Mayes)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언어와 형식과 주제에 근거해 통일성을 주장한다. 그는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에 집중하며 נתן(1절, 21절, 38절, 40절), עבר(14절, 21절, 22a절, 22b절, 26절), בוא(1절, 5절, 21절, 38절), צוה(2절, 5절, 13절, 14절, 23절, 40절), 호렘산 신현현(12절, 15절, 33절), 출애굽 사건(20절, 34절, 37절)이 이 본문의 통일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A. D. H. Mayes, *Deuteronomy 4 and the Literary Criticism of Deuteronomy*, ed. Duane L. Christensen,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 (Winona Lake, Indiana: Eisenbruns, 1993), 197); [Lohfink,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leitungsfragen zu Dtn 5-11*, 30-31, 239-58; Mayes, 앞의 책, 201, 각주 21]; 장재는 신명기 4장이 신명기 1-3장과 단절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시내산 사건이 신명기 1-3장에서는 잠시 유보되었다가 신명기 4장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인데 이는 모세의 신학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 4장에 반복되는 호렘산 사건이 5장 이하의 십계명 이야기와 12-26장의 신명기 법전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장재, “신명기 1-4장의 통일성과 중요성,” 『칼빈논단』 제29호(2009), 656]. 그는 신명기 법전이 십계명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올슨(D. T. Olson)의 주장을 받아들여(D. T. Olson,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A Theological Read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6), 이 본문의 통일성을 강조한다(장재, 윗글, 649-665).

10 W. Resenhöfft, *Die Geschichte Alt-Israels*, Bd. III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23; Bern, 1977), 169-194.

나타나는 수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1-28절은 주로 2인칭 복수이지만, 29-40절은 주로 단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본문에 다양한 삽입구(4:19, 21-22)와 후대 보충(4:29-31) 등에 의해 단절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¹¹ 베이올라(T. Veijola)는 신명기 4장을 율법주의적인(DtrN) 기본층(1a, 10-12a, 13-14, 22)과 계약신학적인(DtrB) 첫 번째 개작(1b, 3f, 9, 12b, 15, 16a, 19, 20, 23abα, 24-29, 31),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를 지혜전승과 결합하는 두 번째 개작(5-8), 마지막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생겨난 두 부록(32-35, 36-40), 서기관의 후대 창작(41-43), 1-4장의 결론 역할을 하는 율법의 표제어(44-49) 등으로 구분했고, 4장 45절을 신명기의 가장 오래된 표제어로 구분했다.¹² 원진희는 신명기 4장의 최초 문서층은 4장 1-3a절, 4절이고, 이 최초의 문서층이 5-28절의 기본 문서층의 첨가를 통해 확장되었고, 호렙 모티브의 발전과 함께 더 확장되었으며, 29-32절(אלהים은 제외), 36절, 37aab절, 38-40절이 여기에 이어 추가로 확장되었고, 여기에 신명기 4장 5-8절과 33-34절이 추가로 삽입되었고, 35절이 보충되었다고 주장한다.¹³ 벡(C. Begg)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2인칭 단수와 복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본문들이 선행 본문들의 인용과 관련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¹⁴ 그는 이 본문이 1-28절과 29-31절과 32-40절 순으로 편집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¹⁵ 뢰머(T. C. Römer)는 신명기 4장에 나타나는 이상승배와 형상승

11 R. D. Nelson, 앞의 책, 60-2.

12 T. Veijola,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원진희 옮김, 『베이올라 신명기』, (서울: 동연, 2010), 175-7.

13 원진희, “신명기 4장의 문학비평적 분석과 신학,” 『신학논단』 제39집(2005), 63-66.

14 C. Begg, “The Literary Criticism of Deut 4, 1-40-Contributions to a Continuing Discussion,”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56 (Leuven: Peters, 1980), 10-55, 특히 28-45.

15 뢰글, 55.

배 금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일신 숭배교에서 유일신교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신명기적인 편집과 관련 있음을 강조한다.¹⁶

위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 본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전통적인 J, E 자료를 찾지 않고, 이 본문을 주로 포로기 혹은 포로 이후의 편집 본문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⁷ 이 논문의 목적은 신명기 4장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반영해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편집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신명기 형성의 마지막 단계를 추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신명기 4장에 대한 편집비평적 연구

1) 요시아 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층(신 4:9-12a, 13-14, 19, 45-49)

(1) 9-12a절, 13-14절

이 부분은 호렘산에서의 계시와 율법 수여를 강조하며 이것을 삼가 스스로 지키고 후손들에게 교육할 것을 강조한다. 9절에 나타나는

16 Thomas C.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New York: T & T Clark, 2007), 172-175; 김경식 옮김,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화적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253-256. 페더(Y. Feder)는 신명기 4장에 나타나는 무형상 주의가 바빌론 포로기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한다[Yitzhaq Feder, “The Aniconic Tradition, Deuteronomy 4, and the Politics of Israelite Identity,” *JBL* 132 (2013), 259-260.]

17 T. Veijola, 위의 책, 174; A. F. Puukko, *Das Deuteronomium. Eine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BWAT 5 (Leipzig, 1910), 133; E. Nielsen, *Deuteronomium*, (HAT 1/6: Tübingen, 1996), 55, 59, 63;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2000), 7, 164-175, 261f.

שמר와 연결된 경고하는 표현은 신명기 12장 13절, 19절, 30절과 15장 9절에도 나타나고, 잇는 것(כש)을 경고하는 표현은 6장 12절과 8장 11절, 14절, 19절과 9장 7절과 연결된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내용은 신명기 6장 7-9절, 20-25절, 11장 19절, 31장 13절, 32장 46절과 연결되며, 신명기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이다.¹⁸ 이 내용은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다른 본문에서 주로 단수 형태로 나타나고(6:12; 8:11; 12:13, 19, 30; 15:9), 원신명기적 표현으로 간주되는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도 단수로 나타난다.¹⁹ 다음 세대 교육은 앗수르의 봉신조약에서도 중심 주제로 나타난다.²⁰ שמר와 결합해 다음 세대 교육을 강조하는 신명기 4장 9절의 표현은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시야 시대의 기본 편집층에 속한다. 4장 10-12a절에서는 이 내용을 호렘산에서의 야훼의 연설과 율법 수여를 불 속에서의 신현현의 신비한 사건으로 연결하며 이를 통한 야훼 경외(ירא)와 자녀 교육(למור)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이 야훼 경외(ירא)를 배워야 한다는 중요한 신명기적 표현은 신명기 전반에 나타난다(4:10; 5:29; 6:2, 13, 24; 8:6; 10:12, 20; 13:5(4); 14:23; 17:19; 28:58; 31:12-13). “그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표현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이지만, 아카드의 조약이나 바빌론의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의 마르둑 찬양, 나보니두스의 비문 등에도 나타나는 표현이다.²¹ 자녀 교육과 관련된 히브리어 למור 동사는 신명기 이외의 다른 오경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신명기적인 표현이

18 R. D. Nelson, 위의 책, 65.

19 C. Begg, 윗글, 31. 후대의 본문으로 보이는 신명기 4장 23절과 11장 16절에서는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

20 R. D. Nelson, 위의 책, 65. 각주 12번.

21 J. R. Lundbom, 위의 책, 240.

다.²² 4장 13-14절에서는 이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사건이고,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한 명령이며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 “규례”와 “법도”가 “언약”과 연결된다. 개역개정에서 “규례와 법도”로 번역된 **שְׁפָטֵי הַבְּרִית** 이 짝을 이룬 형태는 이 구절에서 처음 나타나 신명기 30장 16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난다(4:1, 5, 8, 14, 45; 5:1, 31; 6:1, 20; 7:11; 8:11; 11:1, 32; 12:1; 26:16, 17; 30:16).²³ 이 표현은 신명기 법전(12-26장)의 첫 구절(12:1)과 마지막 부분(12:16)에서 수미상관(Inclusio)을 이루며 신명기 법전이 “규례와 법도”임을 나타내 주는데 신명기 4장에서 30장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신명기 4장 13-14절, 특히 14절의 “그때에”(הַהוּא בַעֲתָ)라는 어구를 통해 “규례와 법도”로 대변되는 신명기 법전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함께 호렘산에서 주어진 것으로 권위를 부여한다.²⁴ 이는 요시야 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자가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신명기 법전(12-26장)을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함께 호렘산에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한 1차 편집층의 핵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장 8절과 44절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로 대변되는 신명기 법전(12-26장)이 율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이 표현에 ‘명령’을 의미하는 **מִצְוָה**나 **מִצְוֹת**와 결합하거나 ‘증거’를 의미하는 **עֵדוּת**와 결합하여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²⁵ **מִשְׁפָּטֵי**은 신명기에서 **קָק**, **חָקָה**, **חֻקֹּת**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뒤에 남성형, 여성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22 T. Veijola, 위의 책, 179.

23 J. R. Lundbom, 위의 책, 235; 신명기 4장 1절, 5절, 8절의 용례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24 R. D. Nelson, 위의 책, 66.

25 J. R. Lundbom, 위의 책, 235.

(2) 19절

19절의 천하만민에게 배정된 ‘일월성신’ 숭배를 금지하는 규정은 15-18절에 나타나는 무형상 주의와는 구별되는 내용이고, 32-40절에 나타나는 유일신관(Monotheism)과도 구별되는 내용이다. 이 구절처럼 ‘일월성신’을 나열하는 형태는 신명기 17장 3절과 열왕기하 17장 16절과 23장 5절과 예레미야 8장 2절에 나타난다. 이방의 천체 신을 숭배하는 현상은 앗수르와 바빌론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기원전 8세기와 7세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널리 유행했다(왕하 17:16; 23:4-5).²⁶ 기원전 7세기에 요시아는 앗수르의 정치, 종교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천체 숭배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왕하 23:5, 11-12).²⁷ 이 구절은 요시아 시대의 신명기적인 첫 번째 편집층에 속한다. 이 편집층은 천체를 신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하며 ‘일월성신’을 하나씩 나열하기 보다는 ‘광명체’(מַאֲרָם)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창세기 1장의 P 전승과는 구분된다.

(3) 45-49절

이 부분은 신명기 1장 1-5절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 반복되는 표제어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의 바로 앞에 나오는 44절도 표제어의 역할을 하며 45-49절과 중복되지만, 44절에 나타나는 율법이라는 표현은 4장 45절부터 30장까지 반복되는 “규례”와 “법도”를 “율법”과 연결하기 위한 후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²⁸ 45절에 나타나는 ‘모세가 증언과 규

26 위의 책, 243.

27 이를 위해서는 이은우, “천체숭배 이방제외에 대한 요시아의 개혁과 그 본문의 역사,” 「장신논단」 46/2 (2014), 13-33을 참고하라.

28 R. G. Kratz, “The Headings of the Book of Deuteronomy,” ed. K. Schmid and R. F. Person, JR.,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übingen: Mohr Siebeck, 2012), 40.

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는 표현과 그것이 선포된 장소에 대한 표현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6장에 나오는 쉼마와 함께 12-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의 서론 역할을 한다. **וְהַמִּשְׁפָּטִים וְהַחֻקִּים** 앞에 결합된 **וְהַעֲרָת**이 주로 제사장 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에 주목하여 45절이 후대의 첨가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²⁹ 그러나 **וְהַעֲרָת**은 신앗수르 제국의 조약 문서에 나오는 용어 *ade*와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로 신명기의 계약신학과 유사성이 있는 표현이다.³⁰ **וְהַעֲרָת**은 **וְהַמִּשְׁפָּטִים וְהַחֻקִּים**의 연어(collocation)가 아니라 요시야 시대의 편집층에 속하는 원래의 표현이다.³¹ 이 부분은 요시야 때 발견된 신명기 법전에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을 십계명(신명기 5장)과 쉼마(신명기 6장) 이야기의 서론에 배치하고 앞의 호렘산 이야기(4:9-12a절, 13-14절)와 연결하므로 신명기 법전(신 12-26장)도 호렘산에서 선포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요시야 시대의 첫 번째 편집층이라 할 수 있다.³²

요약하면 이 부분(신 4:9-12a, 13-14, 19, 45-49)은 요시야 시대의 첫 번째 신명기적인 편집층으로 “규례와 법도”(וְהַמִּשְׁפָּטִים וְהַחֻקִּים)로 대변되는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신명기 법전(12-26장)이 십계명(신 5장)과 마찬가지로 호렘산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권위를 부여하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며 요시야의 종교

29 L. Peritt, *Deuteronomium* (BKAT 5/1-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0-2008), 6-7; Veijola, 위의 책, 223-224.

30 R. G. Kratz, 위의 글, 39.

31 N. Lohfink, “*d(w)t* im Deuteronomium und in den Königsbüchern,” in *Studien zum Deuteronomium und zur 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Vol. III* (SBAB 20;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5), 167-177.

32 G. Von Rad, 위의 책, 11-13; M. Noth, 위의 책, 12-17.

개혁의 중요한 과제였던 앗수르 제국의 종교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천체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금한다.

2) 바빌론 포로기의 신명기적인 편집층(신 4:1-4, 20-22, 26-40):

율법준수/이방 우상 숭배 금지/유일신관 강조

(1) 1절

이 구절의 첫 어구인 ‘그리고 이제’를 의미하는 **ועתה**(베아타)라는 표현은 담론의 전환을 나타내는 어구로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제의 전환이나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편집적인 용어이다.³³ 이 어구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뒤이어 나오는 **שמע**(셰마)라는 표현은 신명기 5장 1절과 6장 3절, 7장 12절에 반복되는 표현으로 이 구절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אלהינו יהוה אחד**의 형태는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신명기에서 직접 목적어를 유도하는 한정사(**אל**)와 결합된 **אלהינו יהוה אחד**(엘 하후킴 베엘 하미쉬파팀)의 형태로는 이 구절에 단 한번 나타난다. 여기에 결합된 “규례와 법도” 준수의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과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의 수여는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로 땅을 빼앗긴 바빌론 포로기의 맥락에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약속의 땅을 회복하여 다시 한 번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로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³⁴

33 J. R. Lundbom, 위의 책, 234.

34 T. Veijola, 위의 책, 185.

(2) 2절

명령에 대한 가감 없는 순종을 강조하는 정경의 공식구는 고대 근동 문학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빠다’를 의미하는 תַּנְרַעַ (티그레우)의 어근 נָרַע (까라)는 아랍어, 시리아어, 남아랍어, 중세히브리어 등에도 나타난다. 아랍어 (*taqarra'a*)도 이 어근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이 표현은 이집트의 지혜문학, 바빌론의 서사시와 법률 수집본, 앗수르의 국가 조약에서 구전 선포뿐 아니라 문서에도 나타나며,³⁶ 신명기 13장 1절(한글 성경에서는 12장 32절), 예레미야 26장 2절, 잠언 30장 6절, 전도서 3장 14절과 속사도 시대의 문서들과 교부들의 저작에도 나타난다.³⁷ 신명기 13장 1절에서는 이 표현이 신명기 법전이 시작되는 신명기 12장과의 관련 속에서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과 관련해 사용된다. 이 표현은 1절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과 3절에 나타나는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표현으로 13장 1절을 참고해 첨가된 표현으로 보인다.³⁸

(3) 3-4절

3-4절의 내용은 신명기 1-3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³⁹ 신명기 3장 29절과 4장 46절에서 모세의 율법 선포의 장소로서 “벳브올”이라는 지명은 나오지만, “바알브올”이라는 지명은 4장 3절에서 처음 언급된다. בְּעַלְ בָּאָל (바알 브올)의 결합 형태는 이 구절 이외에 호세아 9장 10절에 한 번 나타난다. בָּעוֹר (브올)은 민수기 23장 28절과 여호수

35 TDOT Vol. III, 66-67.

36 위의 책, 203.

37 G. von Rad, 위의 책, 51.

38 R. D. Nelson, 위의 책, 62, 64.

39 위의 책, 64; J. R. Lundbom, 위의 책, 236.

아 22장 17절에서는 산의 이름으로, 민수기 25장 3, 5절에서는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해 사용된다.⁴⁰ 신명기 4장 3절은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그들의 신 바알브올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24,000명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개역개정에서 “붙어 떠나지 않은”으로 번역한 4절의 **אֲדָבְרָהֶם**(하드베킴)의 어근 **דָּבַק**(다베크)는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에서만 나타난다. 특히 이 동사는 능동, 푸엘, 히필, 그리고 호팔형으로 나타나며, 동사적 부사⁴¹와 실명사⁴²도 있다. 구약성서에는 히브리어로 이 어근이 60번, 아람어로는 1번 나타나는데,⁴³ “~에 의하여 가깝게 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דָּבַק**의 신학적인 용법은 시편 63편 9절을⁴⁴ 제외하면 사람에게 대하여 쓰일 때, 능동형은 “매달리는, 단단히 붙잡는, (기쁘게) 붙잡는”의 의미를 가지며, 모두 신명기역사서에 나타난다.⁴⁵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야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신명기적 표현(신 4:4; 10:20; 11:22; 13:5[4]; 30:20)이다.

(4) 20-22절

20절의 애굽의 쇠 풀무불에서 인도해 낸다는 표현은 포로의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21-2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기업(**גִּבְעוֹן**)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을 다시 차지

40 HALOT Vol. II, 949-950.

41 다베크: “붙어 떠나지 않는, 붙이다”

42 데베크: “병사(사 41:7), 수행원”

43 ‘다바크’는 능동으로 39번, 푸엘로 2번, 히필로 12번, 호팔로 1번 그리고 아람어로는 피엘로 1번 또한 히브리어로 ‘다베크’가 3번, ‘데베크’가 3번 나타난다.

44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45 TLOT Vol. I, 324-325.

하게 되리라는 표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명기 1장 37-38절과 3장 23-28절에 나타나는 모세의 죽음 모티브와와 연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불순종할 경우 이스라엘이 겪을 부정적인 결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⁴⁶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20절) 야훼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면 요단을 건너 그 아름다운 땅을 회복하여 얻게 하리라(22절)는 바빌론 포로기의 신명기적 편집본문으로 1-3장에 반복되는 모세의 죽음 모티브와 신명기 4장을 연결하는 본문이다.⁴⁷

(5) 26-40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전멸하여(26절), 열방에 흩어져 포로를 경험하게 되고(27절), 거기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리라(28절)는 내용으로 바빌론 포로의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이켜 야훼만을 찾으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실 것이다(29-31절, 40절),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32-34, 37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35-36, 38-39절).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40절). 이 부분은 포로기의 예언자인 제2 이사야에 반복되는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사 41:1, 25f; 43:8; 44:6)는 표현과 연결해 “규례”와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이방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46 R. D. Nelson, 위의 책, 67.

47 T. Veijola, 위의 책, 190-205.

요약하면 이 부분(신 4:1-4, 20-22, 26-40)은 이방 우상 숭배를 포로의 원인으로 해석하고 “규례와 법도” 준수를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충실히 붙잡아서 섬기는 것과 그 결과 이스라엘이 살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과 연결하는 바빌론 포로기의 신명기적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3)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층

(1) 무형상 주의(신 4:12b, 15-18, 23-25)

① 12b절

12b절은 야훼께서 호렙의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는 독특한 표현이다. 이 부분은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흐름을 단절시킨다. 이 구절은 4장 15-18절까지 나타나는 형상 금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편집적 첨가라고 할 수 있다.⁴⁸

② 15-18절, 23-25절

15-18절은 창세기 1장의 P 전승의 창조 이야기에 나타나는 표현들에 무형상 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표현이다. 15-18절은 12b절과 연결해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므로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48 G. von Rad, 위의 책, 36.

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한다. 사실 이스라엘 신앙에서 무형상 주의가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출애굽기 32장 4절, 8절에 나타나는 금송아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호세아 10장 5-6절의 벤아웬의 송아지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려지는 이야기는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신들을 빼앗은 것을 자랑하는 사르곤 2세의 전승을 묘사하는 님루드 프리즘 4의 내용과 연결되며 이스라엘 신앙에 형상을 숭배하는 다신교적 배경이 존재했음을 추측하게 한다⁴⁹: “나에게 맞선 왕에게 동의하여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슈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모의한 사메리나의 거민들, 내가 나의 주들, 위대한 신들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27,280명의 사람과 그들의 전차들, 그들이 신뢰하던 신들을 전리품으로 챙겼다.”⁵⁰ 물론 여기에 대해 비난하는 호세아 8장 1-6절이 있지만, 이 부분은 후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이사야(41:7)와 예레미야(10:3-4, 9)는 우상의 제작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이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유행했음을 증언한다 (왕상 14:9; 15:12; 시 115:4, 8; 135:15-18; 사 30:22; 31:7; 겔 16:17-18, 21; 호 8:4-6; 13:2-3). 앗수르 왕의 생각을 반영한 이사야 10장 10-11절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도 다른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신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⁵² 쿤틸렛 아주르드의 그림 및 명문과 키르벳 엘콤 명문은 사마리아와 예

49 Yitzhaq Feder, “The Aniconic Tradition, Deuteronomy 4, and the Politics of Israelite Identity,” *JBL* 132 (2013), 259-260.

50 K. Lawson Younger, Jr. “Nimrud Prisms D & E(2,118D),” in William W.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2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Leiden: Brill, 2003), 295; 강승일, “고대 이스라엘의 신상과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 「구약논단」 제21권 3호(통권 57집)(2015), 165 재인용.

51 Yitzhaq Feder, *윗글*, 260-263.

52 강승일, *윗글*, 163-164.

루살렘에 야훼의 신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⁵³ 피머는 신명기 4장에 나타나는 무형상 주의와 관련된 본문(12b절, 15-18절)이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편집층이라고 주장한다. 이 본문은 포로 귀환 후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야훼 신상을 비판하며 어떤 형상의 야훼의 신상도 제2성전에 들여놓지 말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다.⁵⁴ 신명기 4장 23-25절에서도 출애굽기 20장 5-6절과 신명기 5장 8-9절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제2계명과 관련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확대해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무형상 주의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본문은 제2성전기의 페르시아 제국 시대 편집층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 부분(신 4:12b, 15-18, 23-25)은 이스라엘이 호렘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재건된 성전에 어떤 형상의 신상도 제작해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명기적인 편집층이다. 무형상 주의를 강조하는 이 편집층은 제2성전기인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층이다.

(2)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지혜와 율법 강론 강조(신 4:5-8, 44)

① 5절

이 구절의 첫 단어 **הַאֱלֹהִים**(레에)는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개역개정

53 윗글, 164-165와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제17권 2호(통권 40집) (2011), 123-144, 특히 137-140을 참고하라.

54 T. Römer, 위의 책, 172-175, 특히 173. 반형상주의에 관해서는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제8집(2000), 151-174, 특히 164-166을 참고하라.

한글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다. 사마리아 오경, 대부분의 번역본, 탈군 요나단에는 2인칭 복수형으로 나타나지만, BHS 편집자는 1인칭을 제안한다. 이 단어는 문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뒤이어 나오는 “가르쳤다”를 의미하는 완료형으로 된 לְמַדְתִּי(리마드티)는 학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4:14; 5:31).⁵⁵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율법 강론을 행했던 것처럼 나타난다. 폰 라트는 이 구절이 이미 행해진 율법강연을 회고하고 있으며 생활률적인 의미로 되풀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⁶ 이는 포로 이후 제2성전 시대에 행해진 율법강연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6절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을 보여준다’는 표현은 신명기에서는 드문 표현이다. “여러 민족 앞에서”로 번역된 לְעַיִן(아인)의 복수 연계형에 אִם(암)이 결합한 אִם לְעַיִן הָעַמִּים(러에네 하아밌)은 구약 성경에서 이 경우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⁵⁷ 이 구절에 명사형으로 나타난 표현 “지혜”(חכמה)와 ‘통찰력’(בִּינָה)과 형용사형으로 반복된 “지혜로운”(חכם)과 ‘통찰력 있는’(נָבוֹן)이라는 표현은 율법과 지혜를 연결하는 강조된 표현이다.⁵⁸ 이 구절에서 한 개인의 특성이었던 “지혜와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전이된다. 열방은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에 관해 듣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칭송한다. 율법과 지혜를 밀

55 J. R. Lundbom, 위의 책, 237.

56 G. von Rad, 위의 책, 52.

57 קוֹנְקוֹרְדִּנְצִיָּה הַרְשָׁה אֲבָרָהָם אֲבֵן שׁוֹשָׁן v.3, 854c.

58 T. Veijola, 위의 책, 199.

접한 관계로 연결하며 개인의 특성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이시켜 집단화하는 경향은 후기 포로기의 서기관과 포로 이후의 서기관들이 가진 초기 신정론적인 사고의 특징을 반영하는 표현이다.⁵⁹ 이 표현은 이 구절의 맨앞에 나오는 “지켜 행하라”라는 전형적인 신명기적인 표현(신 4:6; 7:12; 16:12; 17:19; 23:24; 26:16; 28:13; 29:8)⁶⁰과 결합하여 신명기적인 특징을 띤다. 이 신명기적인 후대 편집자는 통치자에게 요구되었던 특별한 지혜(신 1:13; 왕상 3:12; 사 11:2; 29:14)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돌리는 지혜의 대중화와 민주화를 시도한다.⁶¹

③ 7절

‘이스라엘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크다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가장 후대의 표현(왕상 8:52, 52)과 연결되는데 사실 이런 특징은 야훼의 가까이 하심에 대한 안전한 보증이 기도에 놓여 있다는 포로 이후의 시편(시 34:18 이하; 145:18 이하)과 연결된다.⁶²

④ 8절, 44절

여기에 나타나는 ‘공의로운’(צַדִּיק) 큰 나라에서 주목할 사실은 원래 형용사 צַדִּיק(차디크)는 사람에 관해서 사용되는 말이나(욥 4:17; 시 119:137; 렘 12:1), 이곳에서는 “규례”와 “법도”에 관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의 성격을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59 T. Veijola, 위의 책, 200; Veijola (1982), 133-175.

60 J. R. Lundbom, 위의 책, 238.

61 R. D. Nelson, 위의 책, 65.

62 T. Veijola, 위의 책, 201.

는 이 “규례”와 “법도”가 바로 “율법”(תורה)이라고 표현한다. 신명기 법전(12-26장)에서는 17장 18-19절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도 율법이 תורה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이 나타난다.⁶³ 6절의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이 7절의 야훼의 가까이 계심으로 연결되고 8절의 공의로운 율법으로 연결된다.⁶⁴ 개인들에게 적용되던 “공의로운”(צדיק)이라는 표현이 8절에서 율법을 통한 사회적인 공의의 개념으로 확장되는데 포로의 경험을 통해 신앙의 파국을 경험한 포로 이후의 신명기적인 편집자는 민족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방 민족과 구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을 공의로운 율법의 준수에 둔다.⁶⁵ 율법을 תורה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신명기에서 가장 후대의 구절들이다(신 1:5; 4:8, 44: 31:26). תור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신명기 4장 8절은 신명기 4장 44절과 함께 신명기가 형성되던 무렵의 가장 후대의 구절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명기 4장 5-8절, 44절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 후기 제2성전시대의 율법 강론을 염두에 두고, “규례”와 “법도”를 “율법”과 연결하며, 이를 지키는 것을 “지혜”와 “지식”과 연결하며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야훼와 가까이 하는 민족의 정체성으로 인식한다.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자는 통치자에게 해당되던 “지혜”와 “공의로움”의 개념을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확장하며 “지혜”와 “공의로움”의 민주화를 시도한다.

63 J. R. Lundbom, 위의 책, 235.

64 R. D. Nelson, 위의 책, 65.

65 T. Veijola, 위의 책, 201.

4) 후기 제사장적 신명기 편집층(신 4:41-43)

(1) 41-43절

이 부분은 모세가 다시 주어로 등장하는 요단 동쪽 땅에 설치한 도피성과 관련된 본문으로 4장 전체 문맥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다. 모세의 거대한 교훈적인 연설에 속하는 신명기 4장 1-40절은 44-49절까지의 율법 표제어들과 율법 선포와 관련된 장소들과 연결이 되는데 4장 41-43절의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이야기는 신명기 3장 8-17절의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와 연결된다.⁶⁶ 4장 41절의 시간의 부사 “그 때에”로 번역할 수 있는 za와 여기에 연결된 미완료 형태의 도입 어구들은 문법적인 단절을 보인다.⁶⁷ 신명기 19장 1-13절에 나타나는 요단 서편의 세 개의 도피성 이야기는 신명기 4장 41-43절에 관해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 구절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로페(A. Rofé)는 신명기 4장 41-43절은 신명기 학파의 후대 본문에 속한다고 주장한다.⁶⁸ 올드(A. G. Auld)는 신명기 4장 43절과 여호수아 20장 8절의 도피성 목록과 히브리어 구문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전자가 후자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힌다.⁶⁹ 신명기 4장 41-43절은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의 P 본문을 전제하는 신명기에서 가장 후대 편집층에 속한다.⁷⁰ 로페에 의하면 기원전 5세기 후반 제2 성전 시대에 제사장 법전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신명기 19장의 요단 서편에 있는 도

66 T. Veijola, 위의 책, 215.

67 R. D. Nelson, 위의 책, 72.

68 A. Rofé, “The History of the Cities of Refuge in Biblical Law,” *Deuteronomy: Issues and Interpretation* (London/New York: T & T Clark, 2002), 134.

69 A. G. Auld, “Cities of Refuge in Israelite Tradition,” *Joshua Retold* (Edinburgh: T & T Clark, 1998), 37-48, 특히 39-42, 45-47.

70 T. Veijola, 위의 책, 214-215.

피성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인 편집자가 이 둘의 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신명기 4장 41-43절의 내용을 첨가했다.⁷¹ 이 본문은 신명기 법전(신 19:1-13)과 P(민 35장과 수 20장) 자료 사이에 나타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이 본문에 가장 후대에 첨가된 후기 제사장적인 신명기 편집층(Post Priestly Deuteronomomic Redaction)이다.

요약하면 신명기 4장 41-43절의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에 관한 본문은 신명기 19장 1-13절의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에 관한 신명기 법전(Deuteronomomic Code)의 내용과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의 제사장(P) 전승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첨가된 후기 제사장적인 신명기 편집층(Post Priestly Deuteronomomic Redactional Layer)으로 신명기 4장에서 가장 후대의 편집층이다.

3. 나가는 말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수의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명기 4장이 신명기에서 가장 후대에 형성된 본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가 단순히 포로기 혹은 포로 이후에 형성된 본문이 아니라 요시야 시대부터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오랜 기간에 편집적으로 확장된 본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명기 4장 1-49절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

71 A. Rofé, *윇글*, 137. Cf. G. von Rad, 위의 책, 5. 최근의 P 연구의 동향을 위해서는 이은우,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 찾기: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9권 1호(통권 87집)(2023), 249-271, 특히 249-255를 참고하라.

첫째, 신명기 4장의 기본층은 요시야 시대의 편집층이다. 이 요시야 시대 편집층(신 4:9-12a, 13-14, 19, 45-49)은 신명기 법전에 나타나는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과 호렘산이라는 표현을 연결해 신명기 5장의 십계명과 6장의 쉼마와 함께 신명기 법전(12-26장)도 호렘산에서 유래했음을 강조하며 신명기 법전에 권위를 부여하여 이를 삼가 지킬 것을 강조한다. 이 요시야 시대의 편집자는 원신명기(신 12-26장)에 “규례”와 “법도”의 준수를 강조하는 표현을 첨가해 신명기의 1차 판본(신 4-26장)을 완성했다.

둘째, 위의 신명기의 1차 판본에 “규례”와 “법도” 준수, 즉 신명기 법의 준수와 우상숭배 금지와 유일신 하나님 사상을 결합하여 포로 경험을 반성하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강조하는 바빌론 포로기의 편집층(신 4:1-4, 20-22, 26-40)이 첨가되었다.

셋째, 포로 이후 제2 성전기의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초기 신앙에 존재했던 다신론적 우상숭배를 금하고 솔로몬의 성전에 존재했던 야훼의 형상을 비판하는 무형상 주의 신앙 교리를 강조하는 편집층(신 4:12b, 15-18, 23-25)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율법 준수와 강론을 강조하고 이를 이방민족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독특한 지혜와 공의로움으로 연결하는 제2 성전 시대의 편집층(신 4:5-8, 44)이 첨가되었다.

넷째, 도피성과 관련된 신명기 19장의 원신명기 본문과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의 제사장 본문과 신명기 1-3장의 모세의 요단 동편 정복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후기 제사장적 신명기 편집층(Post Priestly Deuteronomical Redactional Layer)(신 4:41-43)이 오경이 형성될 무렵에 첨가되었다.

참고문헌

-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제17권 2호(통권 40집)(2011), 123-144.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앙의 입을 여는 의식,” 「구약논단」 제21권 3호(통권 57집)(2015), 156-183.
- 원진희, “신명기 4장의 문학비평적 분석과 신학,” 「신학논단」 제39집(2005), 63-126.
- 이은우, “천체승배 이방제외에 대한 요시아의 개혁과 그 본문의 역사,” 「장신논단」 46/2 (2014), 13-33.
- _____,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 찾기: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9권 1호(통권 87집)(2023), 249-271.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제8집(2000), 151-174.
- 장재, “신명기 1-4장의 통일성과 중요성,” 「칼빈논단」 제29호(2009), 649-665.
- Auld, A. G. “Cities of Refuge in Israelite Tradition,” *Joshua Retold* (Edinburgh: T & T Clark, 1998), 37-48.
- Begg, C. “The Literary Criticism of Deut 4, 1-40-Contributions to a Continuing Discussion,”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56 (Leuven: Peters, 1980).
- Braulik, G. *Literarkritik und Archäologische Stratigraphie. Zu S. Mittmanns Analyse von Deuteronomium 4, 1-40*, *Biblica* 59. 1978.
- De Wette, W. M. L. “Dissertatio critica qua Deuteronomium a prioribus Pentateuchi libris diversum alius cuiusdam recentioris auctoris apus esse monstratur,” *Opuscula theologica* (Berlin: Reimerum, 1930).
- Driver, S.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ICC; Edinburgh: T. & T. Clark, 1895).
- Feder, Yitzhaq. “The Aniconic Tradition, Deuteronomy 4, and the Politics of Israelite Identity,” *JBL* 132, 2013.
- Kratz, R. G. “The Headings of the Book of Deuteronomy,” ed. K. Schmid and R. F. Person, JR.,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übingen: Mohr Siebeck, 2012).
- Lohfink, N.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leitungsfragen zu Dtn 5-11* (AnBib 20;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 _____. *Höre, Israel! Auslegung von Texten aus dem Buch Deuteronomium*. Die Welt der Bibel (Düsseldorf, 1965).

- _____. “d(w)t im Deuteronomium und in den Königsbüchern,” in *Studien zum Deuteronomium und zur 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Vol.III.* (SBAB 20;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5).
- Lundbom, J. R. *Deuteronomy: A Commentary* (Michigan/Cambridge: Grand Rapids, 2013).
- Mayes, A. D. H. *Deuteronomy 4 and the Literary Criticism of Deuteronomy*, ed, Duane L. Christensen,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 (Winona Lake, Indiana: Eisenbruns, 1993).
- Nelson, R. D. *Deuteronomy* (OTL;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Nielsen, E. *Deuteronomium* (HAT I/6; Tübingen, 1996).
- Olson, D. T.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A Theological Read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Otto, E.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Z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2000).
- Perlitt, L. *Deuteronomium* (BKAT 5/1-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0-2008).
- Puukko, A. F. *Das Deuteronomium. Eine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BWAT 5; Leipzig, 1910).
- Resenhöft, W. *Die Geschichte Alt-Israels*, Bd. III.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23; Bern, 1977).
- Rofé, A. “The History of the Cities of Refuge in Biblical Law,” *Deuteronomy: Issues and Interpretation* (London/New York: T & T Clark, 2002), 121-147.
- Römer, T. C.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New York: T&T Clark, 2007; 김경식 옮김,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화적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Vejjola, T.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원진희 옮김, 『베이올라 신명기』 (서울: 동연, 2010).
- Von Rad, G.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ATD 8; Göttingen, 1964).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Reimer, 1899).

_____.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New York: Meridan, 1957).

검색어

신명기적 편집, 요시야 시대, 바빌론 포로기, 페르시아 제국, 제사장적 편집

[ABSTRACT]

Discussion of the Final Stages of the Formation of Deuteronomy: Focusing on Deuteronomy 4: 1-49

Eun-Woo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redactional history of Deuteronomy 4. In the discussion of the formation of Deuteronomy, chapters 1-3 are understood as the text of the Deuteronomist, and chapters 5 (or chapter 4, verse 44) to 26 (or chapter 30) of Deuteronomy are understood to be related to the law code of Deuteronomy or the early form of Deuteronomy. Deuteronomy 4 is the text that plays a key role in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of Deuteronomy, playing a role like a blueprint or bird's eye view among the texts up to this point. This study proposes that this text was formed through the following editing or redactional steps through analysis and critical research on various vocabularies and expressions appearing in Deuteronomy 4.

First, the basic layer of Deuteronomy 4 is the editorial layer of the Josianic era. This Josiah-era editorial layer (4:9-12a, 13-14, 19, 45-49) linked the expressions “statutes,” “ordinances,” and “laws,” which appear repeatedly in the Deuteronomistic Code, with the expression Mount Horeb, along with the Ten Commandments in Deuteronomy 5 and the Shema in Deuteronomy 6. The Code of Deuteronomy (chapters 12-26) also emphasizes that they originated from Mount Horeb, and stipulates the careful observance of these laws. This group of editors in Josiah's

www.kci.go.kr

time completed the first edition of Deuteronomy by adding expressions emphasizing the observance of the law to proto-Deuteronomy (chapters 12-26).

Second, to the first version of Deuteronomy, the redactional layer of Babylonian exilic period was added, which stresses the observance of “rules” and “laws,” that is, the observance of the laws of Deuteronomy, the prohibition of worship of idols, and the idea of monotheism, reflecting on the experience of captivity and emphasizing the restoration of the land of Israel (4: 1-4, 20-22, 26-40).

Third, a redactional layer was added in the Second Temple period during Persian Empire after the captivity that forbids the polytheistic idolatry commonly practiced in the early faith of Israel and accentuates the doctrine of aniconism criticizing the image of Yahweh existent in Solomon’s Temple (4: 12b, 15-18, 23-25). An editorial layer of poetry and wisdom literature (Deuteronomy 4: 5-8, 44) was also added, which highlights the observance of the law and homil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in the latter part of the Persian Empire era.

Fourth, the post-Priestly Deuteronomic redactional layer was added, which finally connects Deuteronomy 19 in the proto-Deuteronomy related to the city of refuge, the priestly texts in Numbers 35 and Joshua 20, and the story of Moses’s conquest of the east of the Jordan in Deuteronomy 1-3 around the time the Pentateuch was finalized.

key words

Deuteronomic Redaction, King Josiah’s Period, Babylonian Exilic Period, Persian Empire, Priestly redaction

투고일 : 2023년 04월 16일

심사일 : 2023년 04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5월 17일

www.kci.go.kr